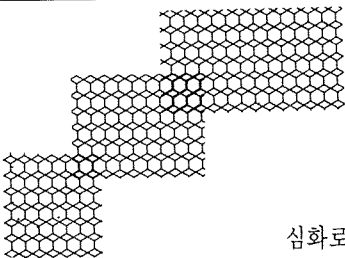


공기조차
마음놓고
들이실 수 없다



정 홍 식

코가 시큰 거릴 정도로 매캐한 자동차 매연 냄새, 도심 밖에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심한 먼지공해,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에도 시야를 뿌연게 흐르는 광화학 스모그현상...

지난 88년 유엔이 내놓은 지구환경보고서는 서울을 세계에서 세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 꼽고있다. 이 조사결과를 지난 80년에서 84년까지의 아황산 가스를 측정 한 결과를 통해서 발표한 것으로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악화일로의 서울시내 대기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국제적인 공식자료이다.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대기오염현상이 도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대기오염의

심화로 스모그현상이 빈발하는가 하면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번지는등 대기오염의 악영향이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처는 작년11월 서울에서 자주 발생하는 짙은 안개현상을 정밀조사한 결과 50년대 영국런던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런던스모그(당새동안 4천명이 숨지고 그 뒤에도 2달 동안 8천명이 숨지는 사태 발생)의 초기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있다.

이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오존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로 인한 LA형 광화학 스모그 현상은 종종 발생했지만 런던스모그 현상이 직접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서울및 대도시의 공기 오염이 런던



스모그 때 보다는 작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탁한 공기를 우리가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그대로 마시고 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기오염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대기오염현상은 비단 자연환경훼손 뿐만이 아니라 인체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대기오염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과 피해를 주는 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적 피해로는

첫째, 호흡기에 의한 급성 영향으로 급성 기관지염, 천식, 발작이 있으며
둘째, 시계로는 눈자극, 각막, 결막염이 생기고
셋째, 소화기계로는 식욕부진, 소화기장애

네째, 신경계로서는 정신이상, 신경과민 증상, 노이로제 그리고 기타 원인 불명의 환자 증가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들 수 있다.

서울의 연탄공장 주변 주민중 12명이-광산의 광부도 아닌-진폐증 환자로 밝혀진 것은 하나의 실례이며,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중 2명중 1명은 호흡기·소화기장애 환자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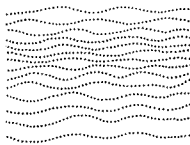
간접적 피해로는

이들 오염물질에 의한 온실효과·산성비·오존층파괴 및 생태계 파괴에 기인하는 각종 2차 피해를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들 간접피해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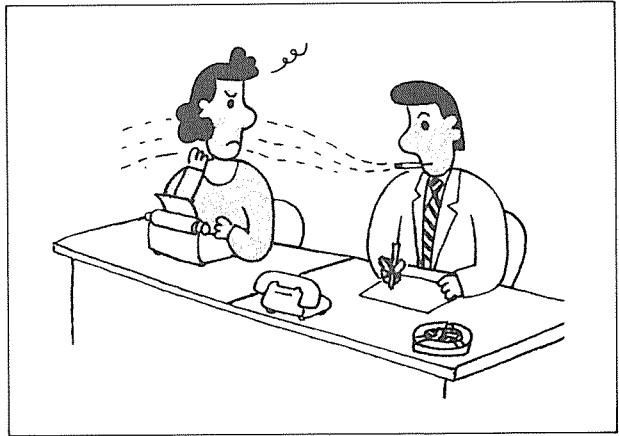
'산성비'의 피해를 예로들어 보자. 산성



서울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일부 지역과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근래에는 실내공기 오염의 피해도 심각한 건강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를 서구에서는 「죽음의 비」 혹은 「초록의 흑사병」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석탄이나 석유등 화석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등이 비와 결합해 내리는 것으로 건물등의 부식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식물의 고사를 촉진시키는등 생태계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천공단주변은 이미 소나무류의 고사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물의 비정상적인 생장현상이 10여년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일부 지역과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근래에는 가정·사무실·지하공간등에서 실내공기의 오염에 따른 건강피해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물론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광범위하

게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및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점은 차지하고라도 먼저 정부와 환경관계 전문가들은 환경관계 법령을 엄격하게 보완·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한다.

또한 차량과 난방용 연료를 매연을 덜 야기하는 청정연료로 전환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공장의 오염규제도 총량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각종 정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도록 하며, 자동차보다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 덧붙여 그린벨트를 포함한 녹지대를 보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필자=녹색의 전화 상담원〉